

◆ 북미

- 미국 AIG, 손실우려로 인한 구조조정 압력 증대
-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 운전면허 취득연령 상향 주장

◆ 유럽

- A.M. Best, 캐본드 발행 위축될 것으로 전망
- 영국인의 38%, 주택보험 가입하지 않아

◆ 일본

- 니혼생명, 육아 지원 기업에 대출금리 우대제도 도입
- 메이지야스다생명, FP 자격취득 장려로 상품제안 능력 재고

◆ 중국

- 중국 AIA, 주요도시 보험수요조사 보고서 발표
- 중국 보험업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핫머니

◆ 국제금융시장 주요 지표

【 북미 】

□ 미국 AIG, 손실우려로 인한 구조조정 압력 증대

- 세계최대 보험사인 AIG가 3분기에도 손실을 기록할 것이라는 우려가 증가하면서 주가가 연일 하락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가하락은 발표예정인 구조조정계획의 강도를 높이는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AIG의 주가는 지난 화요일 20%에 가까운 하락을 기록한 후 수요일에도 4.7% 하락했으며 연초에 비해서는 70% 정도 하락한 상황임.
 - AIG가 2008년 당초 예상됐던 주당 55센트의 손실에서 두 배가량 증가한 1달러 10센트의 손실을 기록할 것이라는 씨티그룹의 전망이 수요일 주가하락의 원인이 됨.
 - AIG는 지속적인 성장성과 수익성을 기록해왔으나 지난 3분기 연속 손실을 기록하면서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으며, S&P의 한 애널리스트는 회사가 모기지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내놓기 전까지는 AIG 주식을 매수하지 말도록 경고할 것이라고 밝힘.
- AIG는 최근 손실을 촉발했던 신용디폴트스왑(CDS:Credit Default Swap) 관련 부문의 부실을 처리하도록 압력을 받고 있음.
 - * 신용디폴트스왑(CDS)이란 채권 등 신용자산의 가치를 감소시키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손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전해 주는 계약임.
 - 현재까지 AIG는 신용디폴트스왑과 관련하여 250억 달러의 부실자산을 상각(writedown)한 바 있음.
 - 한편 이번 위기의 해결을 위해 자산 매각도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매각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 항공기 리스 부문의 매각도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고 관련 애널리스트는 언급함.

(Reuters, 9/10)

□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 운전면허 취득연령 상향 주장

- 미국 내 자동차 보험 산업을 대변하는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 Insurance Institute for Highway Safety)는 지난 목요일 교통안전을 위한 주지사 모임 (Governor's Highway Safety Association) 연례회의에서 운전면허 취득연령을 현행 16세에서 17세 또는 18세로 조정해야한다는 내용을 발표함.
 - IIHS는 자동차 사고가 미국 내 10대들의 주요 사망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들의 안전을 위해 운전면허 취득연령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함.
- 협회는 운전면허 취득연령을 높여야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미국에서 유일하게 운전면허 취득연령을 17세로 규정하고 있는 뉴저지주의 자료를 제시하고 있음.
 - 다양한 연구를 통해 뉴저지주의 10대 교통사고 사망률이 주변 주보다 전반적으로 낮다는 결과가 제시되고 있음.
 - 미국에서는 연간 5천명 이상의 10대가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있으며, 16세의 운전거리 당 교통사고율은 30~59세 사고율의 1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운전면허 취득연령을 높이자는 주장에 대해 운전면허 취득을 하나의 의식으로 여기고 있는 10대와 부모들은 반대 입장을 나타냄.
 - 10대 자녀를 두고 있는 한 부모는 10대가 운전을 통해 부모로부터 독립할 수 있고 책임감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운전면허 취득연령을 높이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힘.
- 한편 운전면허 취득연령을 높이는 것이 10대들의 교통사고율을 낮추는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없으며 야간운행이나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등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됨.

(Insurance Journal, 9/10)

【 유럽 】

□ A.M. Best, 캐본드 발행 위축될 것으로 전망

○ 전통적 재보험의 대체 시장으로 각광받고 있는 캐본드(catastrophe bond, 대재해 채권) 시장이 올해 위축된 상황이며 큰 재해손실이 거의 없는 가운데 앞으로도 호전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세계적인 평가기관 에이엠베스트(A.M. Best Co. Inc.)는 전망함.

* 캐본드(catastrophe bond, 대재해 채권): 자연재해 등으로 보험회사들의 피해가 일정액을 초과할 경우에 투자자들이 투자원금으로 이를 공동부담하는 채권. 투자자들의 부담이 재보험사들의 손실규모에 비례하는 반면, 만기까지 거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높은 이자를 지급받는 고수익·고위험 상품임.

- 2007년에는 총 73억 3천만 달러의 캐본드 발행이 이루어졌지만 올해는 8월말 현재 27억 3천만 달러에 그쳐 작년 같은 기간의 53억 8천만 달러와 비교해 크게 못 미치고 있으며 연말까지 50억 달러를 하회할 것이라고 에이엠베스트는 예상함.

- 생명보험 분야의 캐본드 규모 역시 투자자들의 채무불이행을 방지해 주는 높은 등급의 보험 랩(insurance wraps)을 보험회사들이 제공해 주지 못해 상당한 감소 추세를 보임.

- 재보험의 보험료 인하 함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구조화부채 시장의 문제들도 캐본드 시장침체에 영향을 주고 있음.

- 캐본드 투자자들이 최초 투자시점보다 더 높은 이자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연계증권(Insurance linked securities) 비용도 그만큼 상승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캐본드 발행회사들간의 경쟁이 치열해 진 것도 시장침체의 한 원인임.

- 상당수의 캐본드들은 이들에 투자한 투자은행들이 현재 서브프라임 모기지 익스포저(exposure, 위험노출)로 평가절하 되어 있는 가운데, 여러 감독기관과 신용평가 기구들은 캐본드 거래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질적인 부분에 더욱 주목하고 있음.

(Business Insurance, 9/7)

□ 영국인의 38%, 주택보험 가입하지 않아

- 금융전문 웹사이트 페어인베스트먼트(Fair Investment Company)가 최근 2,511명의 영국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다수의 영국인들은 여전히 주택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전체 38%에 이르는 영국인들은 건물이나 가재도구를 보상해주는 주택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작년 여름 영국의 기록적인 홍수 피해가 극심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결과여서 충격을 주고 있음.
 - 또한 주택보험에 가입한 여성과 남성의 비율은 각각 64%와 57%로 나타나 남성보다는 여성이 주택보험에 더 많이 가입한 것으로 밝혀짐.
 - 영국 가정의 약 10%는 홍수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특히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경우 대지 및 재산을 모두 합해서 약 2,140억 파운드(한화 약 419조원)가 홍수로 인한 손실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홍수정보서비스 전문기업인 홈체크(Homecheck)는 추정하고 있음.
- 이번 조사결과를 발표한 레이첼 스타일스(Rachael Stiles) 페어인베스트먼트 대변인은 최근 연이어 홍수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수의 집주인과 세입자들이 주택보험 가입에 대한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놀라운 일이라고 총평함.
 - 그는 실제 많은 수의 주택들이 홍수에 대한 대비책이 허술하기 때문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필수 상품이 바로 주택보험이라고 강조하면서, 재정적인 부담을 주고 있는 신용경색이 지속되고 있지만 홍수의 가능성 역시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만큼 가재도구와 건물을 보상해주는 주택보험 가입을 미뤄서는 안된다고 강변함.
 - 그는 아울러 홍수대비책을 더욱 발전시키고 정부가 홍수로 인한 주택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동안 보험회사들은 특히 이미 피해를 입은 가옥 소유자들을 위해서라도 보험료를 인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함.

(Fairinvestment.co.uk , 9/11)

【 일본 】

□ 니혼생명, 육아 지원 기업에 대출금리 우대제도 도입

- 니혼(日本)생명은 10월 1일부터 생명보험업계에서 처음으로 「육아지원 기업」에 대출금리를 우대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함.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에 대한 일환으로 종업원의 육아지원에 적극적인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 우대 금리를 실시할 계획임.
- 구체적인 대상기업은 상시 고용 근로자 수 300명 이하로 일본의 「차세대 육성지원대책추진법」의 자격이 되는 기업이며, 3,000만엔 이상 1억엔 이하로 대출할 경우 대출금리를 0.1% 우대해 줌.
- 차세대육성지원대책추진법의 대상 기업은 정부가 정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한 기업으로 2008년 6월 현재, 545개 회사가 인정되고 있음.

- 저출산 고령화로 고민하는 일본에서는 여성의 사회 진출이 진전되면서 일과 육아의 양립이 어려운 고용 환경이 출생률 저하로 연결된다고 지적되고 있음.
- 일하면서도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조성은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이번 니혼생명의 육아지원기업 대출금리 우대 제도는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음.

- 아울러 니혼생명은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설치한 주택을 구입하거나 신축한 개인에 대해 주택론 금리를 우대하는 제도를 9월 18일부터 도입함.
- 우대대상은 니혼생명이 취급하는 「닛세이주택 론」으로 최초 10년간 금리를 0.1% 우대하며, 대출금액한도는 5,000만엔 이하임.

(MONEYzine, 9/12)

□ 메이지야스다생명, FP 자격취득 장려로 상품제안 능력 재고

- 메이지야스다(明治安田)생명보험은 9일 약 1만 2,000명의 영업직원이 금융상품이나 사회보장, 세무 등에 폭넓은 금융지식을 소유한 파이낸셜 플래너(FP) 자격을 취득하였다고 밝힘.
 - 이는 전체 영업 직원의 약 40%에 해당하며 올해 안에 FP 수를 1만 5,000명으로 확대할 계획임.
 - 메이지야스다생명은 보험금 부당 미지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의 보험계약자를 위한 영업직원의 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FP 자격자를 확대시켜 고객에 대한 상품 제안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임.
- 메이지야스다생명은 FP자격취득 장려를 위해 2006년 자격취득을 위한 연수를 실시하는 전문 담당자를 전체 지사에 배치하고 개별 영업 직원의 지식수준에 맞는 꼼꼼한 교육을 제공하는 등 자격취득 지원정책을 추진해 왔음.
 - 이에 따라 2005년에 1,029명이었던 FP자격 취득자는 2006년 5,061명, 2007년 9,876명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금년 8월말 현재, 약 3만 1,000명의 영업 직원 중 1만 2,258명이 FP자격을 취득하였고 입사 3년차 이후 영업 직원의 자격 취득률은 50%를 넘고 있음.
- FP자격 취득자는 사회보장이나 세무지식 등을 활용해 과거 보다 고객의 니즈에 부합한 최적의 보험상품을 제안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실제, FP자격 취득자는 고객 만족도나 신계약의 획득에서도 비취득자를 상회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
 - 다른 생명보험사 중에서는 스미토모생명보험이 2007년에 약 3만 4,700명의 영업 직원 중 7,939명의 FP자격 취득자를 배출했으며, 각사 모두 고객 서비스에 충실하기 위해 영업직원의 FP자격 취득을 장려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산케이신문, 9/10)

【 중국 】

□ 중국 AIA, 주요도시 보험수요조사 보고서 발표

- 중국 AIA(American International Assurance)는 최근 상하이 본사에서 중국 최초의 ‘주요도시 주민의 보험수요 및 소비조사’ 결과를 발표함.
 -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7개 주요도시에서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는 중국 소비자들의 자산운용과 보장에 대한 잠재수요, 보험 및 보험상품에 대한 인식, 보험소비 습관과 만족도 등이 조사됨.
 - 중국 소비자들은 현재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자금마련 위험을 가장 걱정하고 있으며, 퇴직 후 생활에 필요한 충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조사 대상자의 약 60%는 퇴직 후 사회보험기금과 개인예금에 주로 의존하려는 것으로 드러남.
- 질병관련 조사에서 중국 소비자들은 생활수준 향상과 평균수명이 늘고 있는 현대인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수 있는 사건으로 개인의 질병발생을 꼽고 있음.
 - 조사 대상자의 절반이 가족 중 한 사람이라도 중대질병으로 입원하게 되면 충분한 의료비를 부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여기고 있음.
 - 그러나 정작 실제 중대질병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한 이들은 약 15%에 불과해 소비자들의 고민과 실제 행동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이는 중국 소비자들이 자신에게 다가올 수 있는 위험과 그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취약하다는 사실은 명확하게 인식하고는 있지만 그러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한 합리적인 예견과 계획 실천력 등이 다소 부족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음.

(신량재경, 9/8)

□ 중국 보험업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핫머니

- 높은 수익율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움직이면서 적지 않은 문제들을 만들어 내고 있는 핫머니가 이제 중국 보험업을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보험업계 전반에 확산되고 있음.
 - 최근 발표된 올해 상반기 생명보험시장 수입보험료의 지역별 분포에 따르면, 동부연안 대도시의 수입보험료 증가율이 전국평균치를 크게 밑돌고 있는 가운데 유독 광둥성(선전 제외)만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광둥성의 생명보험시장 수입보험료 증가율은 작년의 두 배인 약 92.6%로 장쑤성(江蘇省) 47.5%, 상하이(上海) 56.6%, 선전(深榴) 57.2% 등 전국 수위권의 대도시 증가율을 크게 앞서는 것으로 조사됨.
- 이러한 결과와 더불어 상당액의 핫머니가 보험회사를 통해 유입되고 있는 정황들이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음.
 - 홍콩, 마카오 지역 재산가들은 현지 화폐의 평가절하에 대한 우려와 인민폐의 높은 금리를 목표로 보유자금을 자산운용형 보험상품에 예치하고 있는 상황임.
 - 특히 원금보장과 비교적 높은 수익율을 기대할 수 있는 만능형 보험상품의 인기가 높은 것으로 볼 때, 핫머니 유입수단으로 보험이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 보험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임.
 - 돈많은 홍콩, 마카오 재산가들은 돈을 싸들고 들어와 보험회사를 직접 찾는 경우가 많고, 일반인들 역시 중개기구를 통해 내륙 보험상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파악하고 있음.
 - 올해 상반기 생명보험 수입보험료의 79%가 투자연동형, 만능형 등 자산운용형 보험상품의 일시납이라는 점 또한 핫머니의 유입을 간접적으로 확인시켜 주는 사례로 평가됨.

(중화공상시보, 9/8)

【 국제금융시장 주요 지표 】

구분		07년말	08.9.5(금)	08.9.12(금)	전주대비
금리 (%)	韓 국고채(3년)	5.74	5.80	5.66	-0.14
	美 10년국채	4.03	3.63	3.73	0.10
	英 10년국채	4.51	4.46	4.60	0.14
	日 10년국채	1.51	1.44	1.54	0.10
주가	韓 KOSPI	1,897.13	1,404.38	1,477.92	5.2%
	韓 KOSDAQ	704.23	441.95	466.91	5.6%
	美 DJIA	13,264.82	11,220.96	11,421.99	1.8%
	美 Nasdaq	2,652.28	2,255.88	2,261.27	0.2%
	英 FTSE100	6,456.90	5,240.70	5,416.70	3.4%
	獨 DAX30	8,067.32	6,127.44	6,234.89	1.8%
	佛 CAC40	5,614.08	4,196.66	4,332.66	3.2%
	日 Nikkei225	15,307.78	12,212.23	12,214.76	0.0%
	中 상해종합	5,261.56	2,202.44	2,079.67	-5.6%
	대만 가권	8,506.28	6,307.28	6,310.68	0.1%
	홍콩 항셱	27,812.65	19,933.28	19,352.90	-2.9%
환율	원/달러	938.2	1,116.90	1,108.50	-8.40
	원/100엔	833.33	1,064.54	1,032.20	-32.34
	엔/달러	112.58	106.50	107.32	0.82
	달러/유로	1.4722	1.4265	1.4168	-0.0097
	위안/달러	7.3041	6.8422	6.8440	0.0018